

140. 너희들 자신에게서 나온 나의 말에 굳게 서라.

2015.09.23 – 예수님께서 클레어 자매에게 주신 말씀

(클레어) 오늘밤의 찬양은 매우 특별하였어요. 주님은 8살 정도의 어린 아이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저는 제 머리에 꽃이 꽂아져 있는 어린 소녀, 어린 아이의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그리고 저희는 아이들이 춤추는 것처럼 명랑하게 춤을 쳤고, 정말 순수하고 재미있었어요. 저는 인정해야 했어요. 주님은 확실히 저를 빙빙 돌리는 방법을 알고 있어요! 이것은 매우 달콤한 시간이었고 주님은 제 자신을 어린 소녀로 보여주시려고 하셨어요.

저는 휴거를 기다리는 것에 지쳤고, 세상의 재앙들이 오지 않는 것에 지쳤고, 여전히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주님을 기다리는 것에 지쳤어요. 제 말은 이 모든 것은 매우 육체적이에요. 그것들은 영적인 생각이 아니라 자기연민에서 비롯된 것이에요. 주님은 저에게 매우 부드럽게 대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나도 알아. 너의 감정이 어떤 지 나도 알아. 클레어, 여기에 너의 머리를 기대라. 정말 오래 걸리지 않을 거야. 나는 너가 고통받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아. 나는 너가 고통받는 것을 절대로 좋아하지 않아. 때때로 그것은 삶에 동반하는 필요악일 뿐이야. 그래도 나는 고통을 몹시 싫어하고 너가 지구에서 해방되는 날을 너무나 고대하고 있어.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사람들이 삶보다 죽음을 선택하고 소멸하는 사람들을 보는 도덕적인 고통을 제외하고는 고통이 너에게 거의 남지 않을 거야. 하지만 그 고통조차도 너에게 제한될 거야. 천국에는 특정한 수준의 기쁨이 있고 그것은 거의 항상 그리고 영원히 축하 되어질 거야. 우리 모두가 침묵하게 되는 것은 극심한 전환점 동안만이야. 그런 때가 다가오고 있어.. 아주 곧.

(클레어) 주님, 제가 휴거에 대해서 정말 많이 내려놓았다는 것을 주님도 아시잖아요. 가끔 저는 휴거를 볼 수 있을 때까지 제가 살아있을지 궁금하기도 해요.

(예수님) 오, 아니야. 너는 절대로 그래서는 안되! 다른 사람들은 너가 굳건히 서는 것을 기대하고 있고 그것은 오늘밤 나의 가르침이 될 거야. 너에게 보여준 것들에 대해 굳게 서라. 이것은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어. 나의 클레어야, 나는 너가 재앙들의 때에 대해서 잘 못 인도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 나는 너에 대해 특별히 주의를 기울였어.

(클레어) 음, 일부 사람들은 6월에 있었던 일 때문에 그것을 예외로 받아들일 것이에요.

(예수님) 하지만 진정으로 나와 가까운 모든 사람들도 그것을 느꼈어. 그런데 왜 초조해해? 너는 모두를 기쁘게 할 수 없어. 그냥 나를 기쁘게 해.

(클레어) 주님, 제가 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은 당장 저를 깃털로 밀어 날려버릴 수도 있으세요.

(예수님) 그래, 나도 알아. 그래서 내가 오늘 밤에 서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이유야. 너가 해야 할 모든 일을, 가능한 모든 일을, 다 끝내지 못한 일이 남지 않았을 때, 서라.

‘우리는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이 어두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들인 마귀들을 대항하여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악한 날에 원수를 대항하여 싸워 이기고 모든 일을 완성한 후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무기로 완전 무장하십시오.’ (에베소서 6장 12~13절)

이것이 확실히 너가 지금 살고 있는 악한 날이야. 그래, 지금은 매우 악하고 너가 그 악을 허용한다면 너의 믿음은 심하게 훼손될 거야. 너는 그것을 허용할 거야?

(클레어) 제가 어떻게 방지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 모든 생각을 붙잡고 너가 올바른 길로 가고 있다는 나의 신호를 찾아라. 나는 너가 지금 겪고 있는 일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 즉각적인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함께 어느 정도의 삶의 피곤함이 있어. 나의 신부들아, 나는 너희들을 괴롭히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어.

(클레어) 오 주님, 휴거의 꿈 등과 같은 것으로 저를 강화시켜 주세요. 주님의 광대한 선물 창고에서 어떤 것이든지요. 제 마음은 너무도 약해요.

(예수님) 너는 회복되어질 거야. 그리고 너가 그렇게 할 때 나의 백성들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으로 확신시킬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우리가 너의 치아에 대해 더 긴 시술을 하지 않은 이유야. 천국에서 너는 완벽한 치아를 가지게 될 거야. 그리고 더 이상 치아 교정기가 필요하지 않아. 너가 불완벽함을 뒤로하고 완벽함을 취할 때 너가 지구에서 가졌던 모든 기형적인 것들은 모두 지워질 거야.

(클레어) 주님은 계속 말씀하셨고 성경구절을 인용하셨어요..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릴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죽은 사람들이 썩지 않을 사람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며 우리는 모두 변화될 것입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을 몸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을 몸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때에는 “승리가 죽음을 삼켜 버렸다” 라는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죽음이 쏘는 것은 죄이며 죄의 힘은 율법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그러므로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님의 일에 열심을
다하십시오. 주님을 위한 여러분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15장52~58절)

(예수님) 그리고 이것에 대해 말해. 떨어짐으로 인한 불완벽함은 완벽함으로 대체될 거야.
왜냐하면 천국에는 부정하거나 흠이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야. 클레어? 나에게
오거라..

(클레어) 저는 정신적으로 떠내려가고 있었어요. 저는 항야로 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예수님) 클레어! 나에게 돌아와라..!

(클레어) 죄송해요 주님, 제가 어디를 갔던 거죠?

(예수님)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 이제 너는 돌아왔어. 순환해온 모든 거짓말에 의해 예언적
공동체가 떨어져 나갈 거야.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믿음을 잃을 거야. 그들이 다시
절뚝거리며 돌아올 때 너의 문과 너의 마음을 낙오자들에게 열어주어라. 만약 그들이
진정으로 내 말을 들었고 세상의 자료들을 통해 알고자 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떨어져 나가지
않을 거야.

하지만 그것은 너무 유혹적이었어. 대부분의 중요한 사건들은 절대로 뉴스에 보도되지 않아.
그것은 비밀이야. 대중들에게 드러나게 될 사건들은 그 때가 다 되었을 때보다 더 이후에
나오게 될 거야.

나는 아무도 채찍질하고 싶지 않아. 그들이 나와 나만을 찾았다면 나는 그들에게 이러한
당혹감, 수치심, 실망감과 두려움을 피할 수 있도록 하였을 거야. 나의 신부들아, 너희들의
마음이 나의 마음과 하나일때, 언제 심장이 뛰는 것이 빨라지는지를 알게 될 것이고, 그러면
무엇인가가 진행중임을 알게 될 거야. 하지만 나의 마음은 이달 내내 꾸준히 뛰고 있었고,
너희들이 내 안에 거하였다면 너희들은 그것을 알았을 거야.

세상의 심장은 항상 변덕스럽게 뛰고 있어. 이것은 불안, 불안전함, 두려움을 유발시키기
위한 적들의 의도적인 조작이야. 이러한 감정들은 너희들의 초점을 나에서 너희들 자신의
안전으로 바꾸게 해. 여기서 문제는 신뢰야. 너희들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들 안에
거한다면 내가 너희들의 모든 걱정을 진정으로 돌볼 거야. 사실, 너희들이 내 의제에 더 많이
집중할수록 너희들의 의제를 너희들의 노력없이 더욱 안전하게 할 수 있어.

클레어, 나는 이것이 너의 그 순간의 필요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 오, 사랑하는 나의 것, 너는 너무 지쳤어. 하지만 지금 기도하고 너의 성경책을 펴라. 그러면 나는 너가 듣고 싶어하는 것을 확인시켜 줄게.

(클레어) 그런 후 주님은 저의 성경책을 거꾸로 뒤집고 성경책을 앞이 아니라 뒤에서 펼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였고 누가17장24절을 열었습니다. '마치 번개가 하늘 이편에서 번쩍하여 저편까지 비치듯이 내가 오는 날도 그와 같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먼저 많은 고난을 당하고 이 세대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아야 한다. 내가 올 때에는 세상이 노아의 시대와 같을 것이다. 사람들은 노아가 배에 들어가는 날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다 홍수가 나자 모두 멸망하고 말았다. 또 내가 올 때에는 룩의 시대와도 같을 것이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며 파종하고 집을 지었지만 룩이 소돔에서 나가던 바로 그 날에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비 오듯이 쏟아져 모두 멸망하고 말았다. 내가 나타나는 날에도 그럴 것이다. 그날에는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이 집 안에 물건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고 들에 있는 사람도 집으로 돌아가지 말아라. 룩의 아내를 생각해 보아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며 자기 생명을 버리는 사람은 보존할 것이다. 내가 분명히 말해 둔다. 그 날 밤에 두 사람이 한 침대에 누워 있어도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 둘 것이며 두 여자가 함께 멧돌을 갈고 있어도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 둘 것이다.'

(예수님) 내 사랑아, 봤지. 이걸 봐야.

(클레어) 오 주님, 그 말씀을 주셔서 감사해요.

(예수님) 클레어, 너는 오래 기다릴 필요가 없어. 지치지 말아라. 내 안에서 쉬고, 내 안에서 거하고, 나의 살아있는 말에 굳게 서서 살아라. 왜냐하면 나는 그것들을 신선한 만나로 너에게 가져왔기 때문이야. 너가 성경책에서 펼 수 있었던500쪽 중 누가 이 레마를 펼치게 했다고 생각해? 응?

(클레어)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인내심에 대해 주제 넘거나 시험하고 싶지 않지만 소식 혹은 소식통을 통해서 저에게 확인을 가져다주실 수 있으세요? 제 뜻은

세상적인 소식이 아닌 주님께서 책임을 지고 있으신 소식이요. 오 제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예수님이 충분하지 않다고? 제가 부끄러워요.

(예수님) 클레어, 인류에 온 것을 환영해. 너는 다르지 않아. 너가 나에게 순종하고 뉴스를
보지 않았다고 해서 뉴스를 갈망하지 않았다는 뜻은 아니야. 심지어 지금도 너의 마음은
세상의 확인들에 대한 욕망이 있어. 내 사랑아, 너가 그렇게 불쌍하게 실패할 때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이끌 수 있겠어?

(클레어) 그것은 쉬워요. 저는 아무도 이끌지 않고 단지 주님을 따라가요. 그리고 주님이 저희
모두를 이끄세요.

(예수님) 그 대답은 나를 정말 기쁘게 했어.